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 보름 앞으로

6~7월 국내·외 24개 대회 제주 개최 열기 고조 S-OIL 챔피언십·철인3종·장애인 수영 줄줄이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크고 작은 국내·외 대회가 제주에서 잇따라 개최되며 그 열기를 지킨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6~7월 제주에서 열리는 국내·외 대회는 모두 24개(국제 3·전국 12·도내 9)에 이른다. 참가 선수단 규모는 1만1212명(도내 6328·도외 4884)에 달한다.

대한체조협회가 주관하는 제주국제체조대회가 6월 18~19일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진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앞서 치러지는 대회로서 체조 강국 러시아를 비롯해 한국, 영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 세계 20여 개국의 전세계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경합을 벌인다. 국내에서는 한국체조를 대표하는 양학선(27·수원시청)과 여서정(17·경기체고), 제주출신 양세미(19·제주삼다수)도 참가해 어깨를 견줄 참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 북한팀 선수 참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주중 최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10회 제주 국제 한·중·일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3~4일 사이프러스CC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어 7~9일 엘리시안 제주에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제13회 S-OIL 챔피언십 대회가 펼쳐진다.

제16회 제주 슈퍼맨 전국 철인3종 경기대회가 16일 성산포항을 비롯해 도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선수들이 인강 한계에 도전한다.

제2회 전국 학생 가라데선수권대회 및 2020 국가대표 선발전이 22~23일 구좌체육관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에 제주도배드민턴협회의 주최·주관으로 제1회 전국 공무원배드민턴대회가 예정됐다.

이밖에 제6회 만덕배 전국여성축구대회(6월 29~30일)가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강창학구장에서, 제9회 제주도지사기 전국 지적장애인축구대회(6월 28일~7월 1일)가 효돈축구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제12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장애인수영대회가 바통을 이어간다. 또한 7월 말에 제6회 제주 사랑의 별빛마라톤대회와 2019 전도 청소년 전통무예대회가 잇따라 마련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밝은 표정의 이강인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 한일전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 이강인 등 선수들이 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 근교 푸와비 훈련장에서 훈련을 앞서 그라운드를 돌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에서 열린 제74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단독 6위로 대회 최종 4라운드를 출발한 이정은은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핫식스' 이정은 메이저 US여자오픈 제패 LPGA 진출 뒤 첫 승... 역대 최고 100만 달러 상금 획득

'핫식스' 이정은(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달성했다.

이정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71·6535야드)에서 열린 제74회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

파 70타를 쳤다.

단독 6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이정은은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 유소연(29), 예인절 인(미국), 텍시 톰슨(미국)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지난해 켈리파잉스쿨을 1위로 통과하고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이정은이 9번째 출전한 경기에서 거

둔 첫 우승이다.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달성해 더욱 뜻깊다. 이정은은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 9000만원) 잭팟도 터트렸다.

US여자오픈은 올해부터 우승상금을 역대 최대인 100만 달러로 인상했고, 이정은이 이 상금의 첫 주인이 됐다.

이정은은 우승 트로피, 금메달과 함께 US여자오픈 10년간 출전권도 획득했다.

이정은은 10번째(9명째) 한국인 US여자오픈 우승자다. 연합뉴스

류현진, 시즌 9승 도전 5일 애리조나와 3연전

시즌 20승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시즌 9승과 개인 통산 49승 수확에 도전한다.

미국프로야구 다저스 구단은 3일(한국시간) 게임 노트에서 애리조나와의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5일 오전 10시 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와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다저스는 애리조나와의 3연전에서 워커 볼러, 류현진, 마에다 겐타 순으로 선발투수를 운용한다.

5월을 5승 무패, 평균자책점 0.59라는 눈부신 성적으로 마감한 류현진은 6월 첫등판에서도 여세를 몰아 승수를 쌓아갈 작정이다.

류현진은 시즌 8승 1패, 평균자책점 1.48을 기록해 내셔널리그 다승과 평균자책점 1위를 질주한다.

류현진은 올해 애리조나를 상대로 한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내 실질적인 팀의 1선발 투수로 승승장구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

류현진은 이번에는 1승 1패, 평균자책점 5.19의 우왕 투수 테일러를 라크와 대결한다.

홈에서 6승 무패, 평균자책점 1.01로 무척 강한 류현진은 원정 경기에서도 평균자책점을 1점대로 끌어내릴지 주목된다. 그는 올해 방문 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22를 올렸다. 연합뉴스

제주테니스협회 '이동근배 전도대회' 성황

제2회 이동근배 전도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주테니스협회(회장 오재운)는 지난 5월 19일과 6월 1일 이틀간 연정테니스코트에서 제주지역 테니스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이동근 회장의 인연으로 제주에 정착하며 그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재운 회장은 "테니스 실내 코트가 없는 제주로서는 매년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실내코트 확보를 위해 테니스인들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백금탁기자

제주마 '경성제일' 데뷔 후 6연승 질주

제주마 '경성제일(3세 거세)'이 데뷔 이래 6전 전승을 질주하고 있다.

원유일 기수와 호흡을 맞춘 '경성제일'은 지난 1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 제3경주(1000m)에서 초반 선행 후 막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경쟁한 우승 후보마로 여겨졌던 경주마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했다.

'경성제일'은 스타트부터 무섭게 치고 나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초반 직선주로부터 선두에 나선 '경성제일'은 마지막 4코너를 돌며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펼쳤지만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으며 강한 면모를 보였다.

지난 5월 11일 우승 이후 4주 만에 경주에 출전한 '경성제일'은 이번 경주에서 4~5세 전성기의 경주마들을 제압하며 우수마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백금탁기자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단체인람 신청 | ☎ 064.748.7400

수입/배급 CBS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 천체관람가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명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웬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